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Wives and Husband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학과

석사 기은광**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영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Ki, Eun-Kwang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Lee, Ki-Young

〈Abstract〉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threefold. First, the researcher sought to describe the perceptions of wives and husbands concerning the degree of fairnes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econd, the determinants of wives and husbands' perception of the fairnes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ere analyzed. Third, the factors that affect wives' perception of the fairness in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were compared with the factors that affect husbands' perception of the fairness.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a survey of 139 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of high school age or younger, residing in Seoul, Incheon, and Kyunggido.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in the survey. Frequencies, percentiles, mean, Pearson's correlations, Cronbach's alpha, t-tests,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show that both the wives and the husbands perceive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s unfair for the wives. Further, husbands' gender-role attitudes and household labor preference affected wives and husbands' perception. Most comparison reference variables affected significantly the wives and husbands' perception. Lastly, there was a gender difference in the significance of comparison reference variables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wives mainly employed within-marriage comparisons but the husbands mostly used outside-marriage comparisons. The demographic variables affected the wives' perception, but not the husband's.

▲주요어(Key Words) : 가사노동(household labor), 가사노동공평성 인지(the perception of the fairness in the household labor), 준거(comparison reference), 가사노동분담(household labor division)

I. 서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2003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기은광 (E-mail : gicha0@snu.ac.kr)

있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가 수입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가사노동에서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비맞벌이 부부들보다 더 크게 요구되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늘지 않고 있어(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 1997; 한국여성개발원, 2000)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은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의 연구들 중 상당수가 가사노동분담을 가사노동시간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가사노동이 부부간에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가사노동분담을 시간 등 객관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으로는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이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며, 가사노동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들이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들은 가사노동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서 가사노동의 실제 수행자인 부부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가사노동에 관한 주관적인 기준이나 비교 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가사노동분담을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지닌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에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가사노동공평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매우 적다(유승숙, 1997; 차성란, 1998). 그밖에 전체노동공평성에 관한 연구(홍윤정, 1996)나 결혼생활 공평성에 관한 연구가 몇편 수행되었을 뿐이어서 가사노동공평성인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결과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비교적 공평하다는 연구(Wilkie · Ferree · Ratcliff, 1998; Sanchez · Kane, 1996)가 상당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공평하다는 연구결과(최유정, 1998)와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연구결과(홍윤정, 1996; 유승숙, 1997)로 나뉘고 있어 한국에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과연 어떤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사노동분담시간 또는 시간가용성 및 가족자원변수에 제한함으로써 가사노동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객관적인 분담 시간이나 가족자원변수뿐 아니라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비교 등 준거변수도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부인과 남편은 가사노동분담의 시간 비율뿐 아니라 세부적인 분담항목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부인과 남편에 있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부인과 남편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요구

가 높은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수준은 어떠한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동일하게 불공평하다고 가사노동을 인식함에도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남녀 간의 가사노동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남녀간의 가사노동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생활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표면적으로 부인과 남편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심층적으로는 매우 달라서 생기는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문제에 관한 상담에서도 본 연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적으로는 가사노동공평성에 대해 객관적인 공평성뿐 아니라 주관적인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여건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정책 작성에도 본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가사노동공평성인지

1) 공평성 이론

공평성이론이란 교환이론에서 시작되어 개인간의 자원교환이나 분배정의를 다루는 이론이다(Shaw · Costanzo, 1986). 교환이론에서는 서로가 자기 자신의 최대 이익을 얻거나 최소의 비용을 들이려고 하여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조정의 결과가 결국에는 공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공평성이론은 사람들이 갈등이 아닌 호혜성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며, 공평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며, 불공평한 상태에서는 이익을 얻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모두가 죄책감 등의 고통을 느낀다는 이론이다. 즉, 공평성이론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남의 이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상황은 서로 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평성이론에 기초한 공평성연구에서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 나눌 때 공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가가 큰 관심거리가 된다. Sears · Freedman · Peplau(1986)에 의하면 동등규칙, 상대규칙, 형평규칙의 세 가지 규칙이 있다. 동등규칙이란 공헌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익/손해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상대규칙이란 각자의 욕구에 따라 이익/손해를 나누는 것을 말하며, 형평규칙이란 기여도에 비례해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 사이의 형평규칙에 의한 분배는 [(사람A의 결과) / (사람A의 기여)] = [(사람B의 결과) / (사람B의 기여)] 의 공식에 의한 분배이다.

공평성이론의 기본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Shaw · Costanzo, 1986). 첫 번째 가설은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결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며, 두 번째 가설은 공평한 보수와 분배체제를 발전시킴으로 집단적 보수를 최대화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가설은 불공평한 관계 속에 속한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 즉 죄책감이나 분노 등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가설은 불공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공평성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공평성회복을 위한 전략에는 기여나 결과를 변화시키는 직접적 책략과, 기여나 결과를 변화시키지 않고 거부, 불평, 정당화 등 심리적 왜곡을 사용하는 방어적 책략이 있다.

여러 연구들(조정문, 1995; Greenstein, 1996; 홍윤정, 1998, Wilkie 외, 1998; 김나비, 1999; 전지원, 1999; 강기연, 2000; Lavee · Katz, 2002)이 가족생활에서 공평성이 결혼 등 가족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아서 가족생활에서도 공평성이론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은 공평성이론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 연구에서는 분배규칙에서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기가 힘들다. 가족생활에서는 기여/산출을 균등히 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족생활 자체를 만족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은 형평규칙의 측면만이 아닌 동등규칙, 상대규칙의 측면에서도 공평성을 측정하게 되어,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에서는 공평성이론보다 공평성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즉,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은 단순히 기여/산출만이 아니라 기여/산출을 규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공정성까지 포함할 뿐 아니라, 기여/산출의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가족생활에 공평성이론이 단순히 적용되기는 힘들지만, 공평성이론은 가족생활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가 자신의 만족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으며, 가족생활에 있어 공평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2)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 연구의 차원

국외에서는 공평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공평성의 여러 가지 차원이 국내에서는 아직 몇 편의 연구성과들만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공평성 전반에 관해 이론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연구의 위치를 규정하고 다른 공평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연구성과를 재조명하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가족생활의 공평성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기준을 통해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박정희(1998)는 공평성에 관한 연구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부부간의 공평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 개인 및 가족관계의 여러 모습들을 공평성이론으로 검증한 연구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족의 가사노동분담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들이다.

먼저 주관/객관 차원에서 보면, 객관적인 영역은 실제의 가사노동수행의 영역이다. 이는 가사노동의 분담이나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란 주제로 연구되었으며, 연구대상자들의 시간이나 과업의 분담을 측정하여, 실제의 가사노동이나 수입노동의 분담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영역은 남편이나 부인이 지금의 가사노동 등의 분담을 공평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불공평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로 공평성 인지의 연구는 여기에 속한다. 객관적 영역은 가사노동의 분담 구조를 과업과 시간의 형태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 반면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주관적인 공평성 역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닌다. 주관적인 측면은 당사자들의 생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우 불균형한 가사노동 분담도 준거집단과의 비교로 정당화 되는 등(조정문, 1995)의 단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관심영역차원에서 보면,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공평성을 측정하려는 연구경향(강기연, 2000; 김나비, 1999; 전지원, 1999)과 가사노동 혹은 전체노동의 가사노동의 공평성만을 파악하려는 경향의 논문으로 나뉜다(홍윤정, 1996; 유승숙, 1997; 차성란, 1998). 결혼생활 공평성 연구는 가족학 쪽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정서적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측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가사노동이나 전체노동에 관한 노동공평성 연구는 생활시간의 배분구조나 노동력의 재생산의 균형에 관심을 갖는 가족자원경영학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도 구성 차원은 공평성 인지를 단일 척도로 구성하는 경우와 복합적인 척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단일척도는 관심영역을 단일 문항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 경우 '응답자'가 각 영역을 나름대로 가중 처리하며, 응답 사람마다의 차이를 통제하기 힘들다. 복합척도의 경우에는 관심영역을 세부적으로 물어보아 이를 합산해 측정하며(Hawkins · Marshall · Meiners, 1995), 이 경우 공평성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와 기여와 결과를 계산해서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박정희, 1998). 복합문항의 경우가 중추 혹은 공평성 자체를 연구자가 결정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변수 선정 차원에는 공평성 인지를 독립변수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 보는 경우가 있다. 공평성 인지를 독립변수로 보게 되면 공평성 인지가 결혼만족이나 자아정체감 등에 주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공평성 인지 자체가 가족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공평성 인지를 종속변수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된다.

본 연구는 주관/객관차원에서는 주관적인 영역에, 관심차원에서는 가사노동영역에, 척도구성차원에서는 단일척도영역에 해당되며, 변수선정차원에서는 차원 종속변수 영역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불평등 구조를 당사자는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영향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남녀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가사노동공평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표 1> 가족생활에 관한 공평성 연구의 차원

차원	영역	내용
주관/ 객관	객관	가사노동분담, 수입노동시간, 소득, 학력 등의 비교
	주관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등
관심 영역	가사노동	가사와 양육에 있어 분담의 공평성
	전체노동	가사노동과 수입노동 분담의 공평성
	결혼생활	결혼생활 전반에 관한 공평성; 정서적 공평성과 일상생활 공평성
척도 구성	단일척도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
	복합척도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이를 합산해서 측정
변수 선정	종속변수	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독립변수	공평성과 결혼만족도 등

2)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이론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배우자간에 수행되고 있는 가사노동분담의 공평성 정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Thompson(1991)이 말한 산출가치와, 비교참조, 정당화이다. 산출가치는 크게 시간과 과업 그리고 대인적 가치, 권력 등으로 부인과 남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한다. 산출가치는 단순한 산출의 양 자체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의 가치적 측면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과 과업 두 측면 모두에서 가사노동수행을 많이 하는 부인의 경우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주부들이 이 기준을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산출의 가치적 측면 즉 산출가치 때문이다. 이러한 산출가치 중에서 대인적 가치는 가사노동공평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치적 대인간 산출(valued interpersonal outcome)은 자신이나 다른 이를 위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부인이 남편이 양육에 더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남편의 참여로 인해 부인 스스로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라기 보다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더 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최유정, 1999).

비교참조는 비교의 근거와 자신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준거대상보다 가사노동을 적게 하느냐 혹은 잘하느냐를 통해 현재 자신의 가사노동분담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당화란 남편들이 가사노동을 조금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적합한 정당화를 찾지 못할 때 부인은 불공평성을 인지하게 된다. 남편들이 많이 드는 정당화의 이유는 무경험, 피로, 투박, 신경질, 사회화, 직업노동 등으로 이들 정당화는 남편에게는 정당화로서 사용되지만 부인에게는

정당화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미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있다. Sanchez·Kane(1996)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공평성을 더 높게 인지하며, 여성과 남성의 대다수는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vee·Katz, 2002). 반면, 한국의 연구에서 주부들은 약 50% 이상이 남편과의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불공평한 정도는 취업 주부가 전업주부의 경우보다 더 컸다(유승숙, 1997). 따라서 외국과 한국에는 가사노동공평성의 인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의 가사노동분담이 외국보다 더 불균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전지원(200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연구가 가사노동공평성연구와 비교적 비슷한데, 부부간 일상생활 영역의 공평성 인지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일상생활영역에서의 공평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사노동공평성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노동분담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주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가용성 변수, 자원변수, 성역할태도변수와 가사노동분담변수, 준거변수, 그리고 기타사회인구학적변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가사노동분담 변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부부는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남편이 가사노동을 거의 하지 않을 경우에 부부는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숙(1997)에 의하면 가사노동분담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이와 다른 예측도 가능하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자체를 불공평하게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격차가 큰 상황 아래서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변동 자체가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성 인지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과 더불어 상대적 차이 변수 중 하나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율도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율이 부인에 비해서 매우 낮다면, 부인과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지할 것이다. 홍윤정(1996)은 또한 남편의 참여도가 높을수록 부인은 전체노동이 공평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가용성 변수

시간가용성 변수란 수입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 부인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가져온다.(이승미, 1989) 한 배우자가 취업 등으로 인해 가족 내 역할 수행을 할 수 없다면 시간 제약을 겪는 배우자가 가사노동수행을 적게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현아·이기영(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인과 남편 모두 남편의 긴 수입노동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을 남편의 장시간노동의 큰 문제점으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역할태도 변수

성역할태도란 남녀간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차이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에 찬성하는 정도를 말한다(김성희, 1989).

성역할태도에 따라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부인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 경우 가사노동의 분담을 좀더 요구할 것이고 현재의 분담상태를 더 불공평하게 여길 것으로 생각된다. 부인의 성역할태도는 또한 남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 경우에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불평할 것이고 이는 남편으로 하여금 현재의 가사노동의 분담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남편이 부인의 이러한 성역할태도를 무시 혹은 반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가사노동을 불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인지할 가능성도 있다.

남편의 성역할이 진보적일 경우 부인이 가사노동을 자신보다 더 많이 한다면, 남편의 가사노동수행과 성역할태도 사이에는 거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 경우 첫째, 남편은 가사노동참여에 저항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제의 가사노동참여시간이 늘어나고(최수선, 1995) 이것이 가사노동시간의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남편의 가사노동이 늘지 않더라도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긴장’이 아닌 ‘도움’으로 작용하여 부인이 가사노동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해 줄 것으로 부인과 남편 모두가 기대할 것이다. 이는 부인에게는 가사노동분담구조가 융통적이라는 인식을 제공하고(최유정, 1999), 남편에게는 현재의 가사노동불균형에 대한 수입노동의 과중 등의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하여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편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 경우 부인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이 경우 부인은 아예 가사노동분담의 표준을 낮추어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적응을 통해 오히려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인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Thompson, 1991).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 경우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남편이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해 인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강기연(2000)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일상생활공평성에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인의 일상생활공평성에는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끼쳐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인일수록 불공평한 상황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차성란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성역할태도가 노동분담상태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부인과 남편의 성역할태도 상호작용변인만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Blair·Johnson(199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자체보다는 “부인과 남편이 모두 전일근무를 한다면 가사노동은 평등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가족노동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chez·Kane의 연구(1996)에서는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인 경우 부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개인 및 가족자원 변수

개인 및 가족자원 변수에서는 소득과 교육, 가사노동선호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취업지지를 다루었다.

소득과 교육은 상대적인 자원의 측면과 권력의 측면,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소득이 현재의 자원획득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교육은 미래의 자원획득 가능성과 수입노동에 대비한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득의 상승은 권력증가와 자원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가사노동을 회피해야할 대상으로 여길 경우 남편은 늘어난 권력으로 가사노동을 회피할 것이고 이 경우, 현재의 가사노동은 공평하게 인지될 것이다. 한편, 절대적인 수준으로서의 소득뿐 아니라 상대적 수준으로서의 소득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과 남편의 경제적기여도를 통해서 부인과 남편의 소득의 상대적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서로 공평한 교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좀더 많이 할 것이 요구된다(Kamo, 1988). 부인의 경제적 기여 비율이 더 높을 경우에 부인이 가사노동을 적게 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에 대하여 부인과 남편이 부인에게 불공평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경제적 기여비율이 높은 것을 남편의 남성성이나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된다고 부인이 생각할 때(Hocschild, 2001; 김혜영, 1986), 부인은 남편의 남성성 옹호 및 가정화목을 위해 자신의 가사노동분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경우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사노동의 차성란의 연구에서는 부인소득은 부인의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나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수준이 차이가 날 경우에 보다 교육수

준이 낮은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자원을 덜 가진 것이며,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해야 서로의 기여와 결과를 공평하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며, 부인이나 남편은 교육으로 인한 권력 증가로 가사노동분담을 조정하려 할 것이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할 것이다.

교육수준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가사노동을 하는 기회비용이 증가하여 부인과 남편은 현재의 관계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승숙(1997)과 차성란(1998)의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절대적인 차이를 검증한 것으로 상대적인 차이 즉 교육년수의 차이를 가지고도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가사노동선호란 가사노동에 대해 갖는 호감 또는 비호감을 말한다. 가사노동선호는 가사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사노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의 가사노동수행이 불공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자발적인 선택의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싫어하여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사노동분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Thompson(1991)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사노동을 선호하지 않을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남편은 부인이 요구할 때까지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가사노동을 부인 개인적인 요구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표준을 낮추게 되고 결국 남편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불균형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Thompson의 견해와는 반대로, 남편이 가사노동수행을 싫어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 대한 가사노동요구를 줄이고 자신이 가사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인식에 있어서는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게 인지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남편의 부인취업지지만 부인이 취업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소홀히 하더라도 이를 수입노동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이해하며, 부인의 취업시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먼저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의 취업지지 측면을 살펴보면, 부인은 남편의 자신에 대한 취업지지를 남편이 자신이 수행하는 수입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이 가사노동과 수입노동이라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의 부인취업지지는 부인의 사회심리적 자원이 된다. 또한, 부인이 이중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표준낮추기나 역할재조정의 대처전략을 사용하는데(윤미림, 1995), 남편이 부인의 이중부담의 어려움을 인식할 경우 부인은 자신의 가사노동수행의 표준을 쉽게 하향조정할 수 있어 부인이 직면한 가사노동요구가 작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최유정, 1999). 사회심리적 자원의 획득과 가사노동요구의 감소는 부

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배후에는 부인의 취업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성차별적 가사노동 구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남편은 부인의 수입노동이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서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 수 있다. 남편의 부인 수입노동의 가치인식은 남편이 부인의 상대적 자원의 증가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현재보다 가사노동분담을 더 많이 하여야 가사노동분담이 공평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편의 가사노동의 수행이 늘 경우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나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이 그대로일 경우에는 남편은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지하게 될 것이다.

5) 준거 변수

준거란 비교하는 대상을 말한다. 준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누구와' '어떤 측면'에서 비교하는 가이다. '누가'는 판단의 주체를 말하며, 이 논문에서 판단의 주체는 부인과 남편이다. '누구를'은 비교 대상을 말하며, 주체 자신이거나, 주체 자신의 배우자이다. '누구와'는 준거 즉 인적 표준을 말하며, 이는 주체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신과 배우자의 친구, 동성부모를 말한다. 자신과 배우자 사이의 비교는 부부내 비교로 성별간 비교이며, 친구와의 비교는 부부의 비교로 세대내 비교에 해당하고, 동성부모와의 비교는 부부의 비교로 세대간 비교에 해당한다. '어떤 측면'이란 비교의 영역을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가사노동수행량과 가사노동수행능력을 다룬다. 가사노동수행량은 과업이나 시간의 양으로 대체되어 표현되는 가사노동수행 결과물의 양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며, 가사노동수행능력은 가사노동수행 결과물의 질을 말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이연숙·박경은, 2000).

준거비교의 판단주체와 비교대상을 중심으로 준거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 내의 준거비교는 배우자를 준거로 삼고 자신의 가사노동수행을 평가한 것이다. 수행량, 노동분담이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량 및 노동분담은 가사노동분담 변수 및 시간 가용성 변수에서 설명하였고, 부부 내의 준거비교에서는 가사노동능력 비교만을 다룬다. 부부 내의 준거 비교는 공평성 그 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부부 내의 비교만으로 공평성 인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향요인으로 측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부 외의 변수에서는 세대내 비교와 세대간 비교로 이루어지며, 자기 자신에 대한 비교와 배우자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조정문(1995)은 공평성 자체를 관계적 비교와 준거적 비교로 나눈 후에 관계적 비교에서는 현재의 배우자간에 상대적 손해 여부를 물었는데 이는 부부내 비교와 세대내 비교에 해당된다. 준거적 비교에서는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여 물었는데, 관계적인

비교는 아내와 남편 모두 70%가 공평하다고 인지하였으며, 준거적 비교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비슷한 조건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와서, 준거적 비교를 여성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Gager(1998)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료들이 가장 두드러진 비교집단을 형성하였다고 하며, 이는 응답자들이 부모보다 동료들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부모들은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친지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부인의 경우 자기 자신을 처지가 비슷한 부인과 비교하며, 남편을 비교할 때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간 비교의 경우는 가사노동의 세대간 전달의 효과와 정당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세대간 전달의 효과란 이연숙·박경은(2000)에 의하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행동, 관계, 현실규정, 대처양식 등이 전달되는 것으로 어머니와 딸 사이에 가사노동의 세대간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Millar(이연숙 외, 2000에서 재인용)의 경우에는 가치관과 시간, 금전, 가사노동기술 등이 동성 부모를 모델로 하여 전달된다고 보았다. Gager(1998)의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한 집단은 “흠내형”으로 부모의 가사노동을 흠내 내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변화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큰 집단은 “거부형”이었는데, 거부형에 속한 남편들은 아버지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는 “아동노동자형”으로 아동시절 편부모 슬하에서 자라서 가사노동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어린시절 사회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경우이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준거집단의 수행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이 주변보다 가사노동을 많이 하면 가사노동분담을 보다 불공평하게 인지할 것이고, 남편이 주변보다 가사노동을 많이 하면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성이 보다 완화될 것이다.

6)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가사노동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내 연령이나 가족원수는 가사노동의 요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나, 반대로 조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노동의 요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막내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과업과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 따라서, 양육에 대한 주수행자이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인은 막내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이는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막내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들의 가사노동참여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희숙(1999)의 연구에서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남편들이 가사노동참여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원수에 따라서도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원수가 아닌 자녀수에 따라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연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이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한국적인 현실을 감안하여 자녀수가 아닌 가족원수를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설명할 변수로 선정하였다. 유희숙(1999)에 의하면 자녀수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의 참여도 많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차성란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가사노동 공평성 인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조력자가 있고 없음은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가사노동분담이 현재보다 공평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다. 유희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가사조력자 유무는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있어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차성란(1998)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조력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만,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평성 인지에는 남녀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부인과 남편 각각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1)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척도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란 가사 및 육아활동 등 가사노동의 부담을 부인과 남편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하는 주관적 인지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홍운정(1996)의 연구에서 나온 변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주 질문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응답보기만을 바꾸었다. 홍운정의 연구에서는 불평등한 정도를 물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나에게 매우 불공평하다”에서 “배우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다”의 응답범주를 설정하여 부인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을 5점으로 하고 남편에게 매우 불공평한 것을 1점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3이상일 때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을 의미한다.

(2) 가사노동시간척도

가사노동시간척도는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伊藤七ツ·千野寛子(2001)의 가사노동분류를 기본으로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기영의 연구에서는 26개의 영역으로 가사노동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7개 영역으로 측정하였으며, 부인의 경우는 이를 다시 가사노동시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1개영역에 대해서는 하루평균 수행시간을 물었고, 나머지 6개영역은 일주일 평균 수행시간을 물었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17개 영역 모두 일주일 평균 수행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남편의 경우 17개 영역을 단순 합산해서 가사노동시간을 계산하였고, 부인의 경우 하루 평균을 묻은 11개 영역은 7을 곱해서 이를 더한 값에 나머지 영역의 값을 합산해서 가사노동시간을 구하였다.

(3)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율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율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의 합으로 나누어 이에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부인과 남편이 가사노동을 동일 시간만큼 수행하면 50이 되며, 남편이 가사노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4)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은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을 남편의 수입노동시간과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의 합으로 나누어 이에 100을 곱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이 0이면 부인이 전혀 수입노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며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이 50이면 부인과 남편이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이다.

(5)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이미숙(1995)의 연구를 토대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5점)으로 응답범주를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크론바하알파값은 부인의 경우 .8274였으며, 남편의 경우 .7774로 나타나 내적일관성 요건을 갖추었다.

(6)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는 부인의 소득을 부인과 남편의 소득의 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다. 만일 부인의 소득만 있고 남편의 소득이 전혀 없다면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는 100이며, 부인과 남편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인의 경제적 기여도는 50이 된다.

(7) 교육년수와 교육년차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수는 국민학교까지 졸업 6점, 중학교까지 졸업 9점,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12점, 대학교까지 졸업은 14

점, 대학원까지 졸업 16점으로 측정하였으며, 교육년차는 남편의 교육년수에서 부인의 교육년수를 뺀 값으로 측정하였다.

(8) 부인의 취업지지

부인의 취업지지는 총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한 문항을 제외한 두 개의 문항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부인의 취업을 매우 지지할 때가 10점, 보통으로 지지할 때 6점, 전혀 지지하지 않을 때 2점을 주었다. 응답에 사용한 문항은 “내(부인)가 직장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할 때 남편이 이해해 주는 편이다.” “내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남편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의 두 문항이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부인의 경우 .7987, 남편의 경우 .7414였다.

(9) 가사노동선호도

가사노동선호도는 “나는 가사노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그렇다(5점)” 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의 응답범주를 설정하였다.

(10) 준거변수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는 친구와 동료들 합산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크론바하알파값은 부인의 경우 .8656, 남편의 경우 .9097로 나타났다. 부인(남편)의 남편(부인)과 남편(부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비교는 부인(남편)의 남편(부인)과 다른 남편(부인)과의 가사노동수행량과 가사노동수행능력을 비교한 값을 더해 척도를 구성하였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부인의 남편과 남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평가의 경우 .7596, 남편의 부인과 부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평가의 경우 .7719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대상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은 수도권에 살고 있으며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 이하 맞벌이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서 가사노동부담이 더 클 것이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조사에 앞서서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의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본조사는 2002년 9월 30일에서 10월1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총 203쌍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부실기재된 자료와 본 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139쌍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t검증, 쌍체t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빈도, 평균, 일원분산분석, t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2.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수준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정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의 경우 부인에게 조금 불공평하다고 답한 사람이 78명, 56.1%로 가장 많았고, 남편의 경우도 부인에게 조금 불공평하다고 답한 사람이 71명, 51.1%로 가장 많아서, 부인과 남편 모두 50%가 넘는 사람들이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또한 부인에게 매우 불공평하다고 답한 사람들도 부인의 경우 26명으로 18.7%, 남편의 경우 25명으로 18.0%였다. 따라서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부인의 경우 74.8%, 남편의 경우 69.1%로 부인과 남편 모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부인과 남편 둘 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인의 경우 32명, 23%였고, 남편의 경우 31명, 22.3%였다.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부인의 경우 3명, 2.1%에 불과하였으나, 남편의 경우 12명 8.7%로 나타나 4배가 더 많았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평균을 보면, 부인의 경우가 남편의 경우보다 다소 높았지만, 부인과 남편을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한 t검정결과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인과 남편 모두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부부 모두가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부부간 일치정도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본 결과 둘 다에게 공평하다고 부인과 남편 모두가 응답한 경우는 15명으로 전체의 10.8%였다. 또한 부인과 남편 모두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57.6%이며, 부인과 남편 모두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4%로 모두 69.8%의 부부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해서 일치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빈도	백분율	
연령	부인 (36.0)	20대	21	51.1
		30대	83	59.7
		40대	31	22.3
	남편 (38.4)	20대	7	5.0
		30대	74	53.2
		40대	50	36.0
교육수준	부인	50대	8	5.8
		국졸	2	1.4
		중졸	9	6.5
		고졸	65	46.8
		전문대졸	29	20.9
		대졸	34	24.5
	남편	대학원졸		
		국졸	1	.7
		중졸	5	3.6
		고졸	49	35.3
		전문대졸	30	21.6
		대졸	45	32.4
가족원수 (4.16)	대학원졸	9	6.5	
	3명	29	20.9	
	4명	76	54.7	
	5명	19	13.7	
	6명	13	9.4	
소득	부인 (134.9)	7명	2	1.4
		70만원이하	31	22.3
		7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43	30.9
		10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46	33.1
	남편 (224.3)	200만원초과	19	13.7
		100만원이하	11	7.9
		10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76	54.7
		200만원초과	52	37.4
성역할태도	부인	진보	42	30.2
		중도	81	58.3
		보수	16	11.5
	남편	진보	10	7.2
		중도	81	58.3
		보수	48	34.5

반면에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있어서 불일치 정도가 큰 경우를 살펴보면, 부인은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5.8%이고, 부인은 남편에게 불공평하고 생각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0.7%로 전체의 6.5%의 부부가 가사노동의 공평성 인지에 있어서 극단적인 불일치를 보였다.

한편, 부인은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공

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1.5%였으며, 역으로 부인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4%였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차이는 있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2.9%였다.

<표 3>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수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부인	남편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남편에게 매우 불공평	2(1.4)	4(2.9)
남편에게 조금 불공평	1(0.7)	8(5.8)
둘 다에게 공평	32(23.0)	31(22.3)
부인에게 조금 불공평	78(56.1)	71(51.1)
부인에게 매우 불공평	26(18.7)	25(18.0)
평균	3.90	3.76
t값 (남편집단과 부인집단간 차이검증)	2.044	
Sig.	1.54	
쌍체t값(부부간차이검증)	1.740	
Sig.	0.84	

<표 4>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관계

남편 \ 부인	남편에게 불공평	둘다에게 공평	부인에게 불공평	Total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남편에게 불공평	2(1.4%)	2(1.4%)	8(5.8%)	12(8.6%)
둘다에게 공평	0(0%)	15(10.8%)	16(11.5%)	31(22.3%)
부인에게 불공평	1(0.7%)	15(10.8%)	80(57.6%)	96(69.1%)
Total	3(2.2%)	32(23.0%)	104(74.8%)	139(100%)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부인과 남편은 부부 상호간에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부간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표 4-2>의 쌍체t검정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위에서 살펴본 관련변수들이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는 가사노동분담변수, 시간가용성변수, 성역할태도변수, 개인 및 가족자원변수, 기타인구사회학적변수를 사용하였다.

1)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회귀분석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설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11>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

회귀분석의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57.9%로 높았다.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남편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beta = .378$), 막내연령($\beta = .343$), 가족원수($\beta = .295$), 부인소득($\beta = .220$), 남편의 부인취업지지($\beta = -.207$), 조력여부($\beta = -.197$), 남편의 가사노동선호($\beta = -.187$),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beta = .171$)의 순으로 높았다.

가사노동분담변수는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매우 많은 가사노동분담을 하고 있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나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증가가 개별적인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의 수준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소득이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앞의 분산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부인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인은 현재 가사노동분담을 자신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소득의 증가로 인해 부인의 권력이 증가했지만, 권력 증가가 가사노동분담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편의 가사노동선호가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인이 남편보다 가사노동수행 능력이 높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은 불공평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내서 앞의 분산분석의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가사노동을 싫어할 경우, 부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는 '도움'이 되기보다 '긴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반대로 남편이 가사노동을 선호할 경우에는, 남편이 가사노동수행량이 적더라도 부인은 가사노동수행량이 적은 것을 남편의 가사노동회피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부인은 자신의 선호 자체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데, 이는 부인과 남편에게 있어 가사노동책임이나 가사노동분담의 정당화가 다르다는 Thompson(1991)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변수에 관해서는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부인이 생각할 경우에 부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내서 앞의 분산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이 부인의 직장노동으로 인한 가사노동수행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에 부인은 이를 사회심리적인 지지로 받아들여서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성을 다소 완화시켜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회귀분석

영역	변수	B	β
가사노동	남편가사노동시간	3.570E-03	.050
	남편가사노동분담율	-1.177E-04	-.081
시간가용성	부인수입노동시간	4.804E-05	.011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	-.858	-.094
성역할태도	부인성역할태도	-3.765E-03	-.033
	남편성역할태도	8.066E-03	.059
개인및가족자원	부인소득	1.901E-03	.220*
	부인의 경제적 기여비율	-.752	-.135
	부인교육년수	-3.603E-02	-.103
	남편-부인교육년차	-3.224E-02	-.080
	부인의 가사노동선호	-4.579E-02	-.061
	남편의 가사노동선호	-.145	-.187*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7.895E-02	-.207**
준거	남편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276	.378***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4.608E-02	-.056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6.771E-02	.171*
	어머니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2.908E-02	-.048
	남편과 남편친구와의가사노동수행 비교	-4.589E-02	-.135
기타	막내연령	-4.816E-02	-.343***
	가족원수	.244	.295***
	조력여부	-.305	-.197*
(Constant)		4.402	
R ²		.579	
수정된 R ²		.503	
F값		7.658***	

부인의 남편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부인 이 남편에 비해 가사노동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불공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분산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부인의 남편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를 산출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인의 가사노동수행으로 인한 산출이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으로 인한 산출보다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의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변수에 대해 분석해 보면, 부인이 친구보다 가사노동수행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할수

록,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은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의 분산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가사노동이 부부 내에서 불균형하게 지각되는 경우, 부인은 부부 외에서 불균형한 가사노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찾게 되는데, 부인이 자신의 친구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정당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은 어머니가 아닌 부인친구를 대상으로 자신의 가사노동수행량을 비교해서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공평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인은 세대간의 비교보다는 세대내 비교를 가사노동공평성 인지형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인의 생각에 어머니세대는 자신의 세대보다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지만, 어머니의 세대와 자신이 속한 세대는 서로 규범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의 남편과 남편친구와의 비교의 경우에는 앞서의 분산분석의 결과와 달리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변수를 종합해 보면, 부인은 부부내의 비교를 가장 큰 비중으로 고려하고($\beta=.378$), 그보다는 작은 비중이지만, 부부의 세대내 비교를 고려해서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공평성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유의한 변수는 막내연령과 가족원수, 조력여부로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가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연령과 가족원수가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막내연령과 가족원수는 가사노동의 요구를 늘리는 변수로서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막내연령이 어리거나 가족원수가 늘어나면 가사노동의 요구는 더 증가된, 증가된 가사노동의 대부분이 부인의 몫으로 부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력여부에 따라 부인의 가사노동노동공평성은 달라지는데, 파출부나 일가친척 등이 부인의 가사노동을 조력할 경우에는 부인은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성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회귀분석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설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12>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다.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4-12>에 제시된 것처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2.3%였으며,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유의미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부인과 부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 비교($\beta=.257$)가 가장 컸으며,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차($\beta=-.248$), 남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beta=-.239$), 남편의 부인 취업지지($\beta=.225$), 아버지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beta=-.221$)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가사노동분담과 시간가용성 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부인의 경우에서도 설명했듯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간가용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데 비해 가사노동분담의 차이는 매우 커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개인 및 가족자원변수 중에서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유의한 요인은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차와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변수였다.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차 변수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의 분산 분석의 결과와 달리 남편은 부인이 자신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을수록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인과 남편의 교육년차가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보다 부인의 교육년수가 많을 경우 남편은 부인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부인의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할수록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 분담이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지지하는 경우 부인의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이 부인에게 불공평함을 인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준거변수 중에서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아버지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 비교 등이었다.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은 자신이 자신의 친구보다 가사노동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경우에 가사노동분담이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에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버지보다 가사노동수행량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가사노동분담이 보다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이전 세대인 아버지보다 가사노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면, 남편은 가사노동분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인과 부인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 비교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이 부인친구보다 가사노동수행을 더 잘하거나 많이 한다고 평가할 경우 현재의 가사노동을 불공평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유의한 변수가 없었는데, 막내연령과 가족원수, 조력여부가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요구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관한 회귀분석

영역	변수	B	β
가사노동	남편가사노동시간	-6.544E-05	-.037
	남편가사노동분담율	-2.547E-03	-.030
시간가용성	남편수입노동시간	2.582E-04	.037
	부인의 수입노동시간비율	-.539	-.049
성역할태도	부인성역할태도	1.275E-04	.001
	남편성역할태도	-2.857E-02	-.171
개인 및 가족자원	남편소득	9.399E-04	.107
	부인의 경제적기여비율	1.026	.152
	남편의 교육년수	3.081E-02	.076
	남편-부인교육년차	-.121	-.248**
	부인노동선호	.142	.157
	남편노동선호	-1.473E-02	-.016
준거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112	.225*
	부인과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4.140E-02	-.051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194	-.239*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1.327E-02	.030
	아버지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161	-.221*
기타	부인과 부인친구와의가사노동수행 비교	.126	.257**
	막내연령	-3.277E-02	-.192
	가족원수	1.146E-02	.011
	조력여부	-4.063E-02	-.022
(Constant)		2.171	
R ²		.423	
수정된 R ²		.319	
F값		4.076***	

3)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간 비교

가사노동분담, 시간가용성, 성역할태도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및 가족자원변수에서는 부인은 부인소득이 의미 있는 변수였고, 남편은 부인과의 교육년차가 의미 있는 변수였다. 부인에게는 현재 직접적인 자원의 획득 자체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만, 남편에게는 가사노동의 기회비용 측면인 교육년차가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노동선호는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지만,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부인의 노동선호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부인과 남편에 있어 차이

를 보였다. 남편의 부인취업지지는 부인과 남편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영향력을 끼쳐서 주목할만하다. 부인의 경우 남편의 부인 취업 지지는 심리사회적지지 및 가사노동 요구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남편에게는 부인의 가사노동의 불균형한 분담으로 인한 부인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점이 다르다.

부인과 남편 모두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있어 준거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지만, 세부적인 변수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부부내 비교인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는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력이 매우 컸으나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인의 경우 가사노동수행의 주된 수행자이자 담당자로서 남편보다 수행능력이 뛰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편의 경우에는 부인이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인식하거나 남편의 기여가 매우 작아서 부인과 비교한 가사노동능력의 차이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인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차이(+값은 부인에게 불공평한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함)

영역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변수	방향	변수	방향
개인 및 가족 자원	부인소득	+	남편소득	
	남편-부인교육년차		남편-부인교육년차	-
	남편의 가사노동선호	-	남편노동선호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	남편의 부인취업지지	+
준거	남편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	부인과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능력 비교	-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	친구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어머니와의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아버지와 가사노동수행량 비교	-
	남편과 남편친구와의가사노동수행 비교		부인과 부인친구와의가사노동수행 비교	+
기타	막내연령	-	막내연령	
	가족원수	+	가족원수	
	조력여부	-	조력여부	

부인과 남편의 친구집단과의 비교도 큰 차이를 보였다.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에 있어서 친구집단과의 가사노동수행능력의 차이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가사노동수행량의 차이는 유의한 변수였는데 반해, 남편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수행능력의 차이가 유의했고 가사노동수행량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사노동을 주로 누가 주로 수행하며, 주된 책임을 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인과 남편의 세대간 비교도 차이를 보였는데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세대간 차이가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유의한 변수였다. 이는 부인에게 어머니보다 가사노동을 적게 하는 것은 세대차이로 인한 당연한 것이라 인식을 하는 반면, 남편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것은 세대차이로 인한 것이라 인식하기보다 중요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와 배우자친구와의 비교도 부부간 차이를 보여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부인은 남편이 남편친구보다 가사노동수행이 뛰어나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작기 때문에 이 차이를 그리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반면, 남편은 부인이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어서 부인친구와 부인과의 가사노동수행의 차이는 매우 큰 차이로 지각되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매우 대조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부인의 경우 막내연령, 가족원수, 조력 여부 모두가 유의하였으나 남편의 경우 이러한 변수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인은 가사노동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남편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대체로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간에 가사노동이 불평등하게 분담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을 보다 평등하게 분담하려는 남편의 노력이 특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또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부부에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는 일치하였지만, 관련변수와의 관계분석을 통해서 볼 때 가사노동공평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부인과 남편이 서로 달랐다. 이는 부인과 남편 간의 성차를 보여주는 결과로써, 단순히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 자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평성 인지에 서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적 불평등 현상을 보여 준다. 배우자간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달라서 부부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있어 가사노동 분담 변수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 전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는 하나,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제외하고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은 아니었다. 이는 현재의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이 한쪽 배우자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의 변화여부가 불공평성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노동분담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남편이 가사노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거나 남편이 미숙한 가사노동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악화된다. 이들 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회피전략에 포함되는데, 남편의 이러한 회피전략 사용이 가사노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당화 근거를 제시해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가사노동불공평성 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은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한쪽 배우자의 가사노동회피는 다른 쪽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남편의 가사노동회피전략 사용이 늘어나면,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남편은 가사노동회피전략을 사용하기보다는 배우자나 각종 매체를 통해 가사노동능력을 높이며, 가사노동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 배우자와의 가사노동능력향상과 실천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사노동분담을 공평하게 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남편의 부인 취업에 대한 지지는 부인에게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어 부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향상시키지만, 남편에게는 오히려 현재의 가사노동분담을 부인에게 불공평하게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는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취업지지가 부인에 대한 남편의 정서적 지지로 받아들여지나, 남편에게는 현재의 가사노동불공평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준거변수는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부인과 남편에게는 이들 변수 간에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불평등한 가사노동분담 구조가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상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은 부인에 비해 부부 내에서 가사노동수행을 비교하기 보다는 부부와의 비교를 강조하며, 그것도 동일한 세대 - 남편친구 - 를 대상으로 한 비교보다는 이전세대 - 아버지 - 와의 비교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면에 부인에 대해서는 부인의 동세대와 가사노동수행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편의 비교기준은 부인의 비교기준에 비해서 현재의 불공평한 가사노동분담구조를 정당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공평한 가사노동분담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가사노동분담의 준거집단과 비교영역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남편이 자신과 부인과의 비교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 가정학자는 현재 부

인 따로 남편 따로 비교하며, 서로 다른 기준을 통해 평가하던 것을 부인과 남편 사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통계 자료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교육체계 내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공평하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타인구사회학적 변수는 가사노동의 요구와 관련이 되는데, 부인의 경우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있어 이들 변수를 유의하게 고려하나, 남편의 경우에는 이들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은 가사노동 참여를 적게 하고, 따라서 가사노동의 다양한 측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사노동은 시간에 더불어 과업의 양과 과업의 강도도 문제가 되는데, 남편이 가사노동분담의 공평성을 인지하는데 있어 이들 요소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수행과 더불어 인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비율에 비해서 가사노동분담율은 현저하게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인과 남편은 가사노동을 부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편이 가사노동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위한 근무여건과 사회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공평성 인지가 비교적 일치했지만, 그 영향요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부부간 차이의 배경이 되는 가족체계와 환경의 구조를 파악하고, 부부간에 가사노동공평성 인지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이하자녀를 가진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맞벌이부부 가족은 부인이 취업을 하지 않아서 가사노동공평성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맞벌이부부와 다소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비맞벌이부부에 대한 연구 및 맞벌이부부와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 접수 일 : 2003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9월 24일

【참 고 문 헌】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나비(1999). 기혼 취업여성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도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1986). 주부취업과 관련된 남편의 대립적 이해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희(1989).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부인과 남편의 평가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희(1998). 한국 부부간 공평성 인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07-122.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숙(1997).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공정성 인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희숙(1999). 취업주부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와 결혼만족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미림(1995). 취업주부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관리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1997). 한일 양국 근로자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97-108.

이기영·이연숙·김의숙·조희금·伊藤セツ·千野寛子(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지층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 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연숙·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던한 세대전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29-44.

이현아·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145-160.

전지원(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29(가을호), 559-584.

지금수(1994). 어머니와 기혼딸의 가정자원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12(1), 161-170.

차성란(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학가정학회지, 36(9), 139-122.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유정(1999). 한국 주부의 결혼생활 공평성 인지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고찰 -공평성 인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개발원(2000). 여성통계연보.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홍윤정(1996).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lair, S. L, Johnson, M. P.(1992). "Wives'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e intersection of Housework and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570-581.

Gager, C. T.(1998). "The Role of Values Outcomes. Justification, and Comparison Referents in Perception of Fairness Among Dual Earner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9(5), 622-648.

Greenstein, T. N.(1996).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4(3), 1029-1042.

Hochschild, A. R. 백영미 역(2001).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 하는 남자. 서울:아침이슬.

Hawkins, A. J., Marshall, C. M., Meiners, K. M.(1995). "Exploring Wives'Sense of Fairness About Family Work : An Initial Test of the Distributive Justice Frame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16(6), 693-721.

Lavee, Y., Katz, R.(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February), 27-39.

Kamo, Y.(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2), 177-200.

Kiger, G., Riley, P. J.(1996). "Gender Defferences in Perception of Household Lab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30(4), 357-370.

Thompson, L.(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20), 181-196.

Sanchez, L., Kane, E. W.(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 of Housework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58-387.

Sears, D. O., Freedman, J. L., Peplau, L. A., 홍대식 역(1986). 사회심리학. 서울:박영사.

Shaw, M. E., Costanzo, P. R., 홍대식 역(1986). 사회심리학이론. 서울:박영사.

Wilkie, J. R., Ferree, M. M., Ratcliff, K. S.(1998). "Gender and Fairness: Marital Satisfaction in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August), 577-594.